



#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90期 (2026.05.15) WWW.MINGHUI.ORG

한글판 1054호 minghui.or.kr



▲ 세계 각지 대법제자들이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함께 축하하는 가운데 뉴질랜드 파룬공수련자들이 오클랜드 시내 커머셜 베이 광장에서 단체로 연공하고 있는 모습

## 주요내용

【法輪大法학회】통지

【해 외】국경과 직업을 넘어 전해진 축원

【수련】질투심과 원망심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닦아 버리다

【문화】한유의 변화: 관념을 바꾸려면 직접 겪어봐야

## 〈목차〉

### ■法輪大法학회

통지 ..... 3

### ■해외종합

국경과 직업을 넘어 전해진 축원: 전 세계가 함께 경축한 ‘세계 파룬따파의 날’ ..... 4

전 세계 각지 대법제자들이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함께 경축 ..... 7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 12

한 지식인 부부의 수난과 기개 ..... 15

딸의 변화: 압박 속에서 나는 부모님과 함께 섰다 ..... 18

### ■수련교류

질투심과 원망심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닦아 버리다 ..... 25

다른 수련생이 고비를 넘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수련하다 ..... 29

법을 외우며 진수할 줄 알게 되고 본질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다 33

‘사상업력’에 대한 인식 ..... 43

사람의 이치로 더 이상 모든 것을 따지지 말자 ..... 49

### ■문화예술

한유의 변화: 관념을 바꾸려면 직접 겪어보아야 ..... 52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

[명혜망] 대법 수련은 신성하고 엄숙하다. 어떤 경우에도 매한 수련자는 법을 스승으로 삼고, 엄격하게 수련인의 심성(心性) 기준에 따라 자신의 길을 바르게 걸어야 한다. 어떠한 개인의 진상 알리기와 홍법 중에서도 사부님의 명의를 내걸고 하는 행위(대법 서적 보급 등 포함)를 절대 금해야 한다. 그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동기가 순정(純正)한지 여부의 문제와 연관된다. 사부께서 우리에게 우주 대법을 전해 주셨으니, 매한 대법제자는 마땅히 대법의 요구에 따라 세 가지 일을 잘하여, 자신의 사전(史前) 서약을 이행해야 한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학회

2026년 5월 10일

## 국경과 직업을 넘어 전해진 축원: 전 세계가 함께 경축한 '세계 파룬따파의 날'

[명혜지창 종합 보도] 5월 13일 '세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날'이 다가오면서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경축 행사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명혜망이 5월 10일과 11일 전한 최신 소식에 따르면, 편집부는 이미 중국 안팎에서 수만 장의 축하 카드와 축하 편지를 받았다. 이는 중국을 포함해 국경과 문화, 계층을 넘어 오프라인 경축 행사와 온라인 모임이 함께 어우러진 장면을 이루고 있다.

### 중국: 70여 개 업종과 전국 각지에서 전해진 진심 어린 축원

오랜 기간 이어진 환경적 압박 속에서도 중국 수련자들의 축하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5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에만 명혜망에는 전국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보내온 축하 카드와 축하 편지 5천8백여 건이 게재됐다.

업종도 폭넓게 분포했다. 축하를 보낸 이들은 의료, 교육, 금융, 외교, 사법, 군경, 항공, 과학 연구 등 70여 개 전문 분야에 걸쳐 있었다. 그중 베이징 외교 시스템의 수련자는 축하 글에서 전 세계 각국, 각 민족 수련자들과 함께 손잡고 이 명절을 함께 경축하고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베이징 스징산 교육 시스템의 수련자는 축하 편지에서 다시 5월, 아까시나무 꽃향기가 풍기는 계절이 왔으며, 비바람을 겪어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이념을 지키며 수련을 처음처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계각층의 공감도 이어졌다. 수련자들 외에도 진상을 알게 된 많은 일반 민중, 즉 지지자들도 잇따라 축하 글을 보내왔다. 산둥성의 한 마을 주민은 “우리 마을 사람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이 파룬궁수련자들은 사상적 경지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며, 좋은 일만 하고 어디서나 남을 배려합니다. 그중 한 수련자는 과거 곱사등이 매우 심해 온 마을에 알려진 오랜 병자였지만, 파룬궁을 배운 뒤 치료하지 않고도 저절로 나아 건강해졌고, 해마다 밖에서 의무적으로 눈 치우기 활동에 참여하며 남을 돕는 일을 즐깁니다”라고 썼다.

## 국제사회: 정계 인사들의 표창과 전 세계적 연대

해외에서는 경축 행사가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문화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정계 인사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연방 국회의원, 보수당 부대표 멜리사 란츠먼(Melissa Lantsman), 오타와 시장을 포함한 정계 인사 36명이 경축 행사 현장을 직접 찾거나, 축하 서한과 축하 영상을 보냈다. 이들 정계 인사는 ‘진선인’이 지역사회의 도덕성 향상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성대한 퍼레이드와 집회가 열렸으며,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에너지와 평온함을 느꼈다고 잇따라 밝혔다. 뉴욕주 상원도 경축 활동에 동참해, ‘제27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 경축 기념’이라는 제목의 제1648호 입법 결의안을 공식 통과시켰다.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에서도 호주 시드니와 퍼스, 뉴질랜드, 일본 도쿄, 대만 가오슝,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잇따라 행

사가 열렸다. 시드니 시민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인류의 도덕적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유럽에서는 영국 런던과 독일 뮌헨의 수련자들이 거리에서 관련 정보를 전하며 많은 젊은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한 대학생은 “모든 사람이 진선인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포팻 경(Lord Popat)과 영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이자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베네딕트 로저스(Benedict Rogers)는 사전에 보낸 서한에서 “저는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성대한 행사에 진심 어린 축원을 전하며, 행사가 원만히 성공하고 깊은 의미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계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고 밝혔다.

### **맺음말: 평화와 굳건함의 상징**

이틀 동안 명혜망이 집중적으로 발표한 수천 건의 축하 카드와 보도는 파룬궁수련자와 그 주변 대중의 명절 축원일 뿐 아니라, 27년에 걸친 정치적 박해 속에서도 파룬궁 단체가 여전히 선량함과 이성, 굳건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사회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욕의 한 예술가 팀 쇼(Tim Shaw)가 집회 현장에서 인터뷰하며 말한 것처럼, “전 세계가 파룬궁과 같은 가치관, 즉 진선인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모두가 이런 가치관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는 전쟁과 문제가 없고, 오직 자유만 있을 것이다.”

### **뉴스 배경: 5월 13일의 두 가지 의미**

올해는 제27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자, 파룬따파가 세상에 널리 전해진 지 34주년이 되는 해다. 1992년 5월 13일, 리홍쯔 선생은 창춘에서 첫 번째 설법 학습반을 열었다. 파룬따파는 뚜렷

한 건강 증진 효과와 도덕성 향상을 중시하는 가르침으로, 1999년 7월 중국에서 전면적인 탄압을 받기 시작했음에도 이후 27년 동안 중국과 세계 100여 개국으로 빠르게 전해졌다.

## 전 세계 각지 대법제자들이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함께 경축

2026년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자 대법(大法) 전파 34주년을 맞아 중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대법제자들은 각국 대법제자, 인연 있는 민중과 함께 중생에게 광명을 가져다준 이 위대한 날을 함께 경축했다. 대법제자들은 명절 축하에서 밝혔다. “이 마지막 난세에 저희는 사부님 당부를 명심하고 초지일관하며 법 속에서 끊임없이 승화하고 제고하겠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위대하고 찬란한 한순간에 시간을 다그쳐 사명을 완수하고 더 많은 생명이 대법의 제도를 받게 하겠습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 시장 마크 서트클리프(Mark Sutcliffe)가 시의회를 대표해 올해 5월을 ‘오타와 파룬따파의 달’로 선포했다. 이는 이 도시가 파룬따파 단체를 표창하는 15번째 해다. 5월 5일, 캐나다 동부의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수도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19명의 캐나다 국회의원이 축하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발표하며 파룬궁수련자들과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함께 축하함과 아울러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보편적 가치를 찬양했다. 정계인사들은 파룬궁수련자가 굳게 지키는 ‘진선인’ 이념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극찬했다. 또 파룬궁수련자가 장기

간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견지하는 불굴의 의지를 찬양하며, 파룬궁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고 국경을 넘은 탄압과 캐나다 선출직 공무원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박해가 이미 국경을 넘었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며 캐나다가 반드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밴쿠버섬 너나이모(Nanaimo)시장 레너드 크로그(Leonard Krog)가 4년 연속 파룬따파의 날 기념 깃발 게양식에서 말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매우 환영받고 있으며, 이곳에 온 파룬따파를 기쁘게 환영합니다.” “저는 파룬따파를 지지합니다.”

5월 2일, 미국 수도 지역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내셔널 몰에서 단체로 연공하며 다가오는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미국 워싱턴 광역권에 위치한 메릴랜드주의 웨스 무어(Wes Moore) 주지사는 특별 표창을 수여하며 리홍쯔 사부님의 생신을 축하했다. 표창장에는 “당신은 고도의 진실성과 능력을 보여주어 우리의 큰 신뢰와 존경을 받았기에, 우리는 매우 기쁘게 당신에게 주지사 표창장을 수여하며 우리 주 시민들을 위해 보여준 뛰어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메릴랜드주 하원의장 조셀린 A. 페냐-멜니크(Joseline A. Peña-Melnyk)는 축하 편지를 보내 다가오는 2026년 5월 13일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은 주 제5구역 상원의원 레이크시아 콜린스(Lakesia Collins)가 발의한 세계 파룬따파의 날 및 파룬따파 전파 34주년 표창을 통과시켰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볼링브룩시(Bolingbrook), 이스트 몰린시(East Moline), 윌멧시(Wilmette),

모턴 그로브시(Morton Grove) 4개 도시는 표창이나 서한을 발표해 해당 도시의 파룬따파의 날이나 파룬따파 주간을 선포하고, 파룬따파가 지역사회, 미국 및 세계 각지에 한 공헌을 기리며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시장 존 유잉(John Ewing)은 표창장을 수여하고 2026년 5월 13일을 오마하시의 ‘파룬따파의 날’로 선포했다. 표창장에서는 매년 5월 13일에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고 파룬따파가 전 세계로 전해진 것을 기념하며, 파룬따파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깊은 영향을 찬양한다고 밝혔다. 미국 버몬트주 바레(Barre)시 토머스 J. 로존 시장은 표창장을 수여하고 2026년 5월 13일을 바레시 ‘파룬따파의 날’로 선포했다.

5월 3일, 대만 원린, 자이, 타이난(통칭 원자난) 등 지역 일부 파룬공수련자들이 자이시 중앙광장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와 바자회를 개최했으며,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진 34주년도 함께 기념했다. 현지의 많은 정부 관리와 민의 대표들도 현장을 찾아 축하와 지지를 표했다. 입법위원(국회의원) 왕메이후이(王美惠), 시의원 푸다웨이(傅大偉), 왕하오(王浩), 황민슈(黃敏修), 천자핑(陳家平), 린웨이쉬안(林煒軒)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자이시 의장, 부의장, 입법위원 및 10명의 시의원이 모두 선물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자이시 정부 민정처장 양장젠난은 황민후이(黃敏惠) 시장을 대신해 참석하여 파룬공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말했다. “자이시 정부를 오랫동안 지지해 주신 파룬따파에 감사드립니다.”

5월 9일 토요일, 뉴질랜드 일부 파룬공수련자가 오클랜드 시내 커머셜 베이 광장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장은 평화롭고 기쁜 분위기였으며 천국악단, 요고(腰鼓)팀, 용

춤팀의 멋진 공연이 많은 시민의 발길을 끌었다.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 데이비드 시모어 부총리실, 윈스턴 피터스 외무부 장관실, 마라마 데이비슨 녹색당 의원실 등에서 보내온 축하 서한과 기원을 포함해 이번 행사가 뉴질랜드 정계 인사들의 지지와 축복을 받았다

5월 2일 호주 캔버라 파룬공수련자들은 멜로즈 고등학교 강당에서 커뮤니티 축하 행사를 열어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전해진 34주년을 기념했다. 다수의 지역 정계인사, 커뮤니티 대표, 각계 인사들이 파룬공수련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성황을 이루며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맞이했다. 수도행정구 무소속 의원 캐릭은 이날 축하 행사에 초대받아 매우 기쁘다고 했으며 파룬공 공법을 이해하고 배울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고 했다. 그녀는 파룬공수련자들이 오늘날 사회에 꾸준히 ‘진선인’ 가치관을 전파하고 있음을 극찬하며 파룬따파가 사람들에게 내면의 강인함과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세계를 이롭게 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5월 9일, 제27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맞아 영국 파룬공수련자들은 런던 중심가에서 대규모 퍼레이드와 집회를 열고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파룬따파를 널리 알리신 것을 축하했다. 포팻 경(Lord Popat)과 영국의 유명 인권 운동가이자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베네딕트 로저스(Benedict Rogers)는 미리 서한을 보내 파룬공에 대한 지지와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축원을 전했다.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베네딕트 로저스는 서한에서 말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진선인’ 가치관은 진정으로 찬양받을 만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축하하는 날일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박해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박해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매일 제 양심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가장 잔혹하고 소름 끼치는 탄압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전쟁, 갈등, 경제적 어려움, 권위주의의 위협, 초국가적 탄압의 먹구름 등 깊은 도전으로 가득 찬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격동하는 시기에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진선인’이 더 필요합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중심부에 위치한 구스타브 아돌프 광장(Gustav Adolfs torg)은 이 도시의 주요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곳 중 하나다. 2026년 5월 9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노랫소리와 경쾌한 요고(腰鼓) 소리가 오랫동안 광장 상공에 울려 퍼졌다. 스웨덴 전역에서 온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이곳에 모여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맞이했다. 스웨덴 국회의원이 이날 축하 행사를 위해 특별히 축사와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스웨덴 비셀(Markus Wiechel) 국회의원, 니마 골람 알리 푸르(Nima Gholam Ali Pour) 국회의원, 엠마 알스트롬 코스터(Emma Ahlström Köster) 국회의원이 이날 축하 행사를 위해 특별히 축사와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5월 1일 프랑스 파룬궁수련자들은 파리 팔레 루아얄 광장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 경축 행사를 열고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 사부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사부님의 생신을 축하했다. 교사인 자크(Jaques)는 법을 얻고 수련한 경험을 회상하며, 수련의 길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어 진정한 파룬따파 수련자가 되게 해주신 사부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렸다.

##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다오와이구 파룬궁수련자 가오커(高科)는 2023년 6월 경찰에게 납치돼 이후 법원에서 부당하게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치치하얼 타이라이 감옥으로 끌려간 뒤 장기간 고문을 당해 심각한 정신 이상에 이르렀고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타이라이 감옥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가오커는 2026년 4월 20일 전후로 박해로 사망했으며 향년 약 72세다. 가오커는 하얼빈시 다오와이구 위민 초등학교 퇴직 교사로 16차례 부당하게 감금됐고 5차례 부당하게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으며 1차례 부당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감금된 기간 그는 극도로 잔혹한 고문을 당했고 여러 차례 생사의 갈림길에 섰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광둥성 메이저우시 메이장구 파룬궁수련자 탕즈웨이(湯志偉), 류쉐메이(劉雪梅) 부부는 2025년 10월 12일 밤 경찰에 불법 가택침입 및 납치, 가택수색과 약탈을 당했고 이어서 메이저우시 구치소에 감금돼 모함을 받았다. 2026년 4월 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메이셴구 법원은 이미 두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8년형을 선고하고 12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지린성 지린시의 67세 파룬궁수련자 리더취안(李德全)은 10년간 부당한 옥살이를 한 바 있다. 2024년 봄, 그는 집에서 경찰에게 또다시 납치돼 불법적으로 갇히고 모함을 당했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그는 또 불법적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지린성 공주링 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이번이 그가 겪는 세 번째 부당한 옥살이다. 1998년, 그는 동생 리더샹(李德祥)과 동시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지난 27년 동안, 두 형제는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주민센터 직원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경찰에게 납치, 불법 가택수색, 불법 선고를 받았으며, 감옥에서 수련 포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혹형, 전기 충격, 세뇌 및 강제 '전향'을 당했다. 리더샹은 두 차례 부당한 판결을 받았고, 리더취안은 세 차례 불법 선고를 받았다.

후난성 주저우시 파룬궁수련자 류용페이(劉蓉培)는 올해 63세이다. 2026년 2월 10일,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강제로 납치됐다. 류용페이는 4일 전 안타깝게도 어머니를 잃었다. 류용페이가 불법적으로 3개월간 구금된 후, 2026년 5월 초가 돼서야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이미 주저우시 루쑹구 공안, 검찰원, 법원에 의해 3년 반 형을 비밀리에 판결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후베이성 황강시 황저우구의 79세 은퇴 고급교사이자 파룬궁수련자인 류취화(劉菊花)는 2025년 8월 25일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 납치돼 이후 부당하게 감금돼 모함을 받았다. 2026년 2월 10일 우췌시 법원은 그녀에 대한 부당한 재판을 열었고, 4월 20일 법원은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녀에게 2년형을 선고했다. 이 노인은 이전에 이미 세 차례 부당한 강제노동, 한 차례 부당한 판결을 받았고, 누적된 억울한 감옥 생활이 9년 반에 달했다. 이 기간 그녀는 잔인한 학대와 체벌을 받았고,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과 정신적 붕괴에 직면했다. 류취화는 황강시 츠비 중학교 고급교사로, 은퇴 전 황저우구 츠비 교육팀 교연실(教研室) 주임으로 일했다. 그녀는 국가 및 성

(省)급 교육 간행물에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여러 편이 인민교육출판사와 성 교연실 우수 논문상을 받았고 동료와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교사이다.

산둥성 이난현 파룬궁수련자 팡즈화(龐志華)가 위챗으로 친구에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국보에 납치돼 반년 동안 갇혀있다가 이미 비밀리에 불법적인 1년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10월, 팡즈화가 휴대폰 위챗으로 친구에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내용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난현 사이버 경찰이 필터링으로 엿보았다. 팡즈화는 즉시 이난현 국보대대와 샹허우진 파출소 경찰 및 협조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난현 구치소로 끌려가 자백을 강요당하고 모함을 받았다.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파룬궁수련자 리핑수(李鳳淑·여)는 올해 73세다. 2025년 6월 초, 베이징 화이러우 파룬궁수련자 리핑수는 화이러우 공안분국 국보대대와 취안허 파출소 무리에게 납치됐다. 순이 구치소에 15일간 감금됐다가 취보후심으로 풀려났다. 2025년 6월 28일, 화이러우 공안 국보와 취안허 파출소는 리핑수를 다시 납치해 순이 구치소에 감금했다. 2026년 4월 17일 화이러우구 법원이 그녀에 대해 불법 재판을 했고 이후 그녀는 부당하게 1년형을 선고받았다.

## 한 지식인 부부의 수난과 기개

[명혜지창] 고대 도시 지난(濟南)에서, 류루핑(劉如平)과 장청란(張承蘭)은 한때 학문에 몰두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렸다. 그는 법률 연구 책임자이자 변호사였고, 그녀는 산업정보국 소속의 꼼꼼한 엔지니어였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

2026년 3월 13일, 류루핑(65세)과 장청란(62세)은 지난시 창칭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그 결과, 류루핑은 3년 6개월, 장청란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만 8천 위안의 벌금까지 강요당했다.

이번이 류루핑에게는 세 번째, 장청란에게는 두 번째 불법적인 투옥이었다. 노동 수용소에서 겪은 박해는 제외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법적 절차 없이 2년간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으며, 형기가 2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

### 난초의 고요함: 영광이 ‘작은 의자’로 변하다

“순수한 사람은 난초처럼 고요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장청란이 아직 자유로웠을 때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쓴 편지다.

산둥성 제2노동 수용소에서 류루핑은 지름이 겨우 몇 인치도 안 되는 작은 의자에 하루 18시간씩 앉아 있어야 했다. 새벽부터 해 질 녘까지 그의 엉덩이는 궤양으로 뒤덮였고, 살과 피가 옷에 달라붙었다. 이는 가혹한 세상에 대한 육체의 조용한 저항이었다.

한때 펜을 쥐고 법률 문서를 읽던 그의 손은 이제 무릎에 묶여 있었다. 류루핑은 그저 허리를 곧게 펴고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사회적 교류도, 책도, 자유도 박탈당한 그 ‘고요함’ 속에서 그의 내면에 피어나는 난초 향기는 더욱 강렬해졌다. 그것은 지식인의 고결함이었다. 생활 여건이 극도로 열악해졌을 때, 정신적인 차원은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다.

### 매화의 흑한: 영하의 온도에서 지킨 ‘진·선·인’

장청란이 여자 노동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은 진정한 ‘매화의 매서운 추위’였다.

북쪽의 겨울밤이었다. 간수들이 일부러 열어둔 창문으로 영하의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장청란은 숨을 넣은 외투를 입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녀는 작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발은 겨울 서리에 갈라진 나무껍질처럼 붓고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수행을 시작한 오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은행에서 100위안을 더 줬는데, 그녀는 일부러 비를 맞으며 찾아가 돌려줬다. ‘정직’을 지키는 것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적 원칙에 대한 고수는 그녀에게 고문 속에서도 매화처럼 굳건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경찰은 그녀에게 따듯함을 대가로 신앙을 포기한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강요했지만,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도 신념을 굳게 지켰다. 그녀에게 배신은 얼어 죽는 것보다 더 차가웠다. 이 흑독한 시련 속에서도 그녀는 지식인의 양심과 강직함을 굳건히 지켰다.

### 연꽃의 순수함: 자비심에는 적이 없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격렬한 대치 순간에 펼쳐졌다.

유루핑의 입술은 전기봉에 맞아 새까맣게 그을리고 얼굴은 일

그러진 채, 그는 자신을 폭행한 경찰 정완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연민이 가득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자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하지 못해 유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연꽃의 순수함이다. 연꽃의 아름다움은 진흙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피어나는 순수함에 있다. 그들은 폭력의 껍질을 꿰뚫어 가해자들의 시들고 두려움에 가득 찬 영혼을 보았다. 20년의 수감 생활 동안, 그들은 명예, 재산, 신체적 위해라는 삼중 박해로 흠어진 양심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 눈보라 속의 수호자

류루핑은 1982년 7월 산둥농업대학교 농업경제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시 창칭구 기획위원회에서 근무했고, 1993년 10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지난시 창칭구 당교 법률연구실 실장과 순톈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의 아내 장청란은 지난시 창칭구 경제정보국 엔지니어다.

이들은 전형적인 지식인 가정이다. 부부 모두 존경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아들은 총명하고分別력이 있었으며, 형제자매들은 화목하게 지냈다. 가족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만약 이 악의적인 박해가 없었다면, 이들은 부러움을 살 만한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이었을 것이다.

류루핑은 1997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이전에 앓던 위장염, 신경쇠약, 인후염 등의 질환이 모두 사라졌다. 수련 후, 그는 법학 강의, 법률 실무,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진선인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진실을 말하고, 실제로 행동하며,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내면을 성찰했다.

그의 인품은 동료, 의뢰인, 이웃들로부터 널리 칭찬받았으며, 그의 법학 강의 또한 수련생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편의 심신이 수행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본 장청란은 2005년 봄, 자신도 수련을 시작했다. 이미 덕망 있는 아내이자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미덕을 갖춘 그녀는 수련을 통해 더욱 평화롭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 동료, 친척, 동창, 친구, 이웃 모두 그녀를 존경하고 칭찬했다.

2026년 5월, 60세가 넘는 두 사람은 다시 투옥되었다. 임금은 끊기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장청란이 편지에 쓴 것처럼, 그들은 “변화를 통한 자유”(여기서 변화는 강제 세뇌를 받아들이고 스승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라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기로 했다.

도덕이 무의미한 시대, 영혼을 파괴하는 중국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이러한 힘은 결국 높은 벽을 허물고, 선의 힘이 폭력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의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양심은 사회 안정의 근간이다.

## 딸의 변화: 압박 속에서 나는 부모님과 함께 섰다

글/ 중국 왕징(王靜, 가명)

“엄마, 저는 돈만 필요해요, 그냥 돈이나 주세요, 그게 실속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가 나에게 대법(大法)을 수련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하셨을 때, 나는 픽 웃으며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는 예전에 파룬궁(法輪功) 서적을 들춰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책에서 일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등이 기준이 꽤 높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만 생각했다. 나는 그때 막 집을 샀기에, 먼저 돈을 벌어 빚을 갚아야겠다는 현실적인 생각만 온종일 했다. 나중에는 대법 책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

그 후 어머니가 나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는 불법(佛法) 수련이라서, 대법의 요구대로 하면 부처·도·신(佛道神)으로 수련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서 얼른 말했다. “엄마, 정말 좋네요, 두 분 다 수련 성취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당시 내가 생각한 것은, 부모님이 신선으로 수련 성취하신다면 우리 3남매가 노후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으니, 마음속으로는 타산적이고 이기적이었다.

##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가한 압박

부모님은 1997년부터 수련을 시작하셨다. 1999년 7월 20일 이후, 파룬궁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집은 편할 날이 없었다.

2000년 설에 어머니가 공안에 의해 구치소에 불법 구류되었던 것이 기억난다. 우리 3남매와 고모 등 친척들 여러 명이 고향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전쟁’을 벌이며 연공(煉功)을 포기하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했다. 아버지가 쓰지 않으면 어머니처럼 구류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대가족이라 친척이 많아서 집안은 별집을 쭉서 놓은 듯했고, 다들 번갈아 가며 아버지에게 압박을 가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한마디씩 거들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도 가만히 계셨다.

“내 온몸의 병이 연공해서 나았는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뭐가 나쁘냐? 진실을 말하면 안 되냐? 너희는 어찌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 온몸의 병이 다 나은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러냐,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나중에 아버지는 이 말만 계속 반복하셨고, 다들 각자 자기 말만 하다가 누구도 서로를 설득하지 못한 채 불쾌하게 헤어졌다.

집안에 예전에 없던 참상이 벌어졌다. 어머니는 구치소로 납치되었고, 집에는 아버지와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만 계셨다. 나는 매우 슬퍼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오빠는 더욱 화가 나서 찾김에 부모님이 매일 연공할 때 쓰시던 녹음기를 마당에 던져 부숴버렸고, 부모님의 파룬궁 서적까지 찾아내 훼손해 버렸다.

그때 오빠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그것이 선악과 흑백이 뒤바뀐 것임을 알게 되었다.

## 반성하기 시작하다: 나의 ‘입장’이 맞을까?

어머니가 불법 구류되어 계신 동안, 경찰인 오빠는 나에게 어머니가 구치소에서 나오실 때 고개를 숙이고 매우 부끄러워하신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전향(강제 세뇌를 받아들임)되었다는 뜻이고, 반대로 웃으며 고개를 꼴꼴이 들고 가슴을 펴고 나오신다면 그것은 전향되지 않은 것이니 계속 수련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과연 오빠가 말한 대로 고개를 꼴꼴이 들고 가슴을 편 채 미소를 지으며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셨다. 나는 나중에야 그것

이 어머니가 당당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정직하게 처신하며 선량함을 유지하는 길을 굳건히 걸어오셨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신 후, 우리 집은 이틀에 한 번 작은 싸움, 사흘에 한 번 큰 싸움이 시작되었다. 한 번은 남동생이 훗김에 대야에 담긴 물을 어머니에게 끼얹기까지 했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오히려 매우 평온하셨다. 몸을 닦으시더니 이렇게 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가족이니 나도 너희 심정을 이해한다만, 너희는 우리 세 사람이 연공해서 병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몸이 모두 건강해져서 너희들 부담을 덜어준 것을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할머니는 열아홉 살 때 괴상한 병에 걸려 특하면 기절하셨지. 너희 아버지도 질병에 시달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 베이징(北京)의 여러 큰 병원을 자주 오가셨고, 게다가 허리 디스크까지 있어서 출근도 못 하고 온종일 생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통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느냐?”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겠니? 대법을 수련해서 이 병들이 다 나았으니,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은혜에 보답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부님께서서는 우리 신체를 정화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어머니가 하셨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지. 큰 은혜는 말로 다 감사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단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단다. 우리는 대법을 확고히 수련할 거다!”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안에 울려 퍼졌다.

내 마음은 어머니의 말씀에 약간 크게 울렸다. 점차 우리 남매

는 더는 부모님께 압박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괴롭힘이 있을 때면 친척들에게 얼른 어머니 댁으로 가서 부모님을 보호하라고 알렸다.

그동안 이웃들과 친척, 친구들은 찾아와 괴롭히는 경찰들과 우리 집에서 여러 차례 승강이를 벌이며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를 보호해주었다.

### 부모님은 한때 강제로 ‘유랑 생활’을 하셨다

그 후 박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2001년, 이 지역 향진(鄉鎮), 파출소, 대대(大隊) 간부 등 20여 명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 아버지를 세뇌반으로 강제 연행해 수련을 포기하게 하려 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치를 따졌지만 그들은 아예 듣지 않고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라고만 했다. 결국 아버지는 핑계를 대고 먼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 보아도 갈 곳이 없어 아버지는 결국 깊은 산속 동굴로 피하셨다. 아버지는 밤이면 한기가 뻗속까지 스며드는 아주 추운 산에서 며칠을 보내셨다. 경찰이 없는 틈을 타 몰래 집에 와서 외투를 가져가고서야 흑한을 넘기실 수 있었다.

그 관리들은 아버지를 찾지 못하자 어느 날 밤, 문을 부수고 담을 넘어 곧장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집안에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 혼자 계신 것을 보고서야 머쓱해져서 떠났다.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연로하신 부모님은 몇 번이나 집을 떠나 유랑하는 나날을 보내셨다.

###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2001년 새해, CCTV의 ‘텐안먼(天安門) 분신자살’ 뉴스가 보도되자 전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수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정월에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텐안면 분신자살’은 가짜란다. 대법제자는 살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살하겠니?”

어머니는 또 한 번 간곡하게 하셨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렴! 네가 직접 읽어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다.” 어머니는 또 나를 일깨워주셨다. “왜 중공(中共, 중국공산당)이 이렇게 큰 힘을 들여 파룬궁을 깎아내리고, 또 책과 대법의 모든 자료를 훼손하겠니?” 어머니가 말씀하신 ‘책’은 ‘전법륜’이었다.

그렇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갑자기 두꺼운 껍질에 한 줄기 틈이 갈라지듯 그 틈으로 눈 부신 빛이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잘 대하셨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좋아했는데, 그런 어머니가 나를 해치시겠는가?

그동안 나는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일어난 신기한 일들과 다른 수련생들의 수련 이야기를 적잖이 들었다. “너희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너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 우리의 진실한 모든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니.” 부모님의 힘찬 말씀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부모님은 모두 오륙십 대의 산골 노인들이시다. 친척과 친구들의 몰이해, 형제자매들의 뒤에서 하는 비웃음과 조롱, 거기에 자녀들의 무리한 협박까지 더해진 이런 압박 속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납치, 불법 구류, 세뇌반 감금, 불법 노동교양, 나아가 징역형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시종일관 신념을 확고히 하셨고, 언제나 상화(祥和)하게 모든 것을 대하셨다. 이런 담력과 기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부모님의 ‘살가운 딸’이자 평범한 가정주부인 나도 두 노인의 비범함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점차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책 속에 도대체 어떤 힘이 있는지 봐야겠다!’

그 후 나는 책을 읽었고, 책 속의 이치를 보면서 때로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소리 내어 말했다. “정말 좋다, 정말 너무 맞아.” 나는 생각했다. ‘사람이 평소에 나쁜 짓을 하면 남을 경계해야 하니 정말 피곤한 일이다. 좋은 사람이 되어 당당하면 얼마나 좋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역시 수련에 들어섰다.

## 맺음말

할머니는 대법 수련을 견지하여 105세까지 장수하셨고, 2022년 12월에 병 없이 평온하게 돌아가셨다.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나는 한때 부모님께 선량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신앙을 배반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이성이 나를 가두지 않게 했고, 끊임없는 인식과 끊임없는 반성은 나에게 마침내 예전의 생각을 버리게 했으며, 부모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했다. 나는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걷기 힘들고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함께 서서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해 보라, 이런 안정된 가족 구조와 장수하는 노인은 사실 국가의 사회보장과 체제유지(維穩) 지출을 얼마나 많이 줄여주었겠는가?

## 질투심과 원망심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닦아 버리다

글/ 중국 대법제자 연향(蓮香)

[명혜망] 나는 질투심, 원망심 등 이런 사람 마음이 나 자신에게 모두 있고 또한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것들을 없애고 싶었지만 분명하게 똑똑히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들은 내 신체 내에 존재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며 어떤 일에 부딪히기만 하면 이런 사람 마음에 시달려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었다.

최근 어떤 한 가지 일을 통해 이런 마음들이 남김없이 충분히 폭로돼 그것들의 존재를 똑똑히 보고 그 모습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런 좋지 않은 사람 마음을 버렸다. 다시 어떤 일과 마주쳤을 때 나는 이런 사람 마음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거나 이끌 수 없음을 느꼈고 내 마음은 평온하고 온화하게 변했다. 나는 마음이 무척 가볍고 행복함을 느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내 주변에 친척인 한 수련생이 있는데 그녀는 거짓말하기를 좋아해 생활 속의 일부 일들에 대해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을 예사로 여긴다. 그날 나는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속인 일을 또 하나 전해 들었다. 사실 그녀는 전혀 숨길 필요가 없었고 숨겨서도 안 되는데 이런 일을 저렇게 말해버렸다. 거짓말이 이미 습관이 됐기에 그녀 자신조차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당시 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수련인이 어떻게 늘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던 말인가!’라며 분개했다. 나는 감정이 몹시 격동됐고 이런 행위를 원망했으며 이런 사람도 원망했다. 사실 내가 그녀를 싫어한 지도 오래됐는데 단지 지금 그녀가 폭로한 각종 좋지 않은 행위가 나에게 그녀를 더욱 싫어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녀 역시 남이 지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절대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만약 누군가 그녀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녀는 곧 지적한 사람을 괴롭히곤 했으므로 다른 친척 수련생이나 다른 수련생들도 감히 그녀에게 지적하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자칭 수련인이라고?!’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불평으로 요동치며 말투가 격렬해졌고 잔뜩 화가 난 모습이었다. 나는 ‘왜 내 인생 중에 이런 사람이 배치됐을까’ 하고 탄식했다. 처음에 나는 내 이런 표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두 그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여겼다. 그러나 나중에 집에 돌아온 후 가족 수련생이 나의 그날 표현에 대해 무척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나는 가족 수련생의 의견을 듣고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

그날의 한 장면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고 나는 그때 내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감정이 격동하고 분개하는 그 모습은 바로 질투심, 원망심의 생생한 표현이었으며 남김없이 다 드러났다. 나는 단번에 그것들의 존재를 보았고 그것들을 찾아냈다. 내가 그 수련생에 대해 품은 불만과 원망이 바로 질투심, 원망심의 진실한 체현이 아니겠는가? 그것들의 표현이 충분히 생생하지 않은가? 아직도 똑똑히 보이지 않는가? 내심은 이미 그렇게 어지럽혀져 있었다.

나는 동시에 또 다른 정경을 상상해 보았다. 만약 질투심, 원망심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표현일까? 이런 일을 들은 이후 단지 한 가지 일을 알게 된 것일 뿐 내심에 어떠한 파란도 일지 않고 여전히 물처럼 평온하며 그저 이 수련생에 대한 일종의 동정심이 있을 것이다. 그녀가 이 방면에서 잘 수련하지 못해 법의 기준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니 수련해 제고하길 기다려야 한다고 여길 뿐, 단지 이뿐이다.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평온할 것이다.

나는 또 만약 질투심이 없었다면 신공표(申公豹)는 어떠했을까 하고 연상해 보았다. 그들의 사부님이 강자아(姜子牙)에게 신을 봉하게 한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마음속으로 그저 ‘아’라고 한 번 했을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지 이뿐일 것이다. 내심에 어떤 파동도 없고 어떠한 불만도 없을 것이다.

만약 영은사(靈隱寺)의 방장에게 질투심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제공(濟公)의 신통을 알게 된 후 그는 자신의 수행이 그에게 훨씬 미치지 못함을 생각하며 마땅히 제공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그에게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수행함은 물론 전 사찰의 승려들도 모두 그를 배우게 했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제공을 위해 기뻐하고 내심으로 제공에 대한 존경심이 일었을 것이다.

만약 ‘전법륜(轉法輪)’에서 언급한 그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한 동료에게 질투심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는 마땅히 진심으로 승진한 동료들을 위해 기뻐했을 것이다. 자신이 비록 그보다 유능하지만 승진하지 못했더라도 무슨 원인이든 막론하고 흔연히 받아들이고 내심에 어떠한 불평도 없었을 것이며 그 후 즐겁게 자기

가 할 일을 하러 갔을 것이다.

이 일을 겪으며 나는 나 자신의 질투심, 원망심을 정말 똑똑히 인식하게 됐다. 그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또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며 사람의 내심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몹시 고통스럽게 하는지 말이다. 이 일을 통해 질투심, 원망심이 폭로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 나는 그것들을 찾아내 똑똑히 보았고 똑똑히 가려내 자아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좋지 않은 생명이 내 이곳에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은 제거되는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친척 수련생은 행위가 좋지 않아 보이고 또 자주 내게 상처를 주어 고통스럽게 만들기에 나는 그녀를 싫어하고 원망했다. 사실 수련인의 각도에서 보면 그녀는 정말로 나를 돕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바로 나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수련인은 마땅히 반대로 문제를 봐야 한다. 그녀가 매번 내게 준 상처는 바로 내가 한 가지 사람 마음을 발굴하도록 돕는 것이었고, 또 다른 사람 마음이 폭로됐음을 예시해 제거할 준비를 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는 정말이지 하늘만큼 큰 좋은 일이다! 만약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 마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또 이곳에서 사람의 나날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다. 그저 편안하게 지내려 하고 사람 마음이 건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집착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증차를 제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사람 마음이 건드려져 고통을 느낄 때 또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해야 하고, 마

땅히 기뻐해야 하며 그 후 진지하게 이 사람 마음을 찾아내 버려야지 어찌 좋지 않은 일로 여길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속인의 층차에 서서 문제를 보아선 안 된다.

나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의 배치를 깊이 체득했다. 바로 이 수련생을 배치해 나의 수련을 돕게 하신 것이다. 내 생명 속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누가 사람 마음을 버릴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돕겠는가? 그녀는 자신의 시간, 생명을 소모하며 실제로 연기해 내가 심성을 제고할 기회를 만들도록 도왔다. 혹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나에게서는 확실히 이런 작용을 일으켰으니 나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감사해야 한다.

## 다른 수련생이 고비를 넘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수련하다

글/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철거로 인해 저는 새로운 법공부 팀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에는 한 노년 대법제자가 있는데, 그녀의 집이 법공부 장소이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도 모두 대법제자입니다. 단체 법공부 외에도 그들 세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법공부를 하고, 서로 교류하며, 서로 격려합니다. 할머니에게는 또 세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수련하지 않고, 둘째 딸은 수련하며 일할 때 법으로 가늠하며, 셋째 딸은 수련을 하는 등 마는 등 합니다. 셋째 딸은 몸이 불편할 때면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녀는 성격이 매우 강해서 두 언니가 모두 그녀의 말을 듣습니다.

11월 말, 할머니에게 병업 가상이 나타나 숨이 차고 답답해했습니다. 팀에서 법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공부했지만, 나중에는 끽끽거리는 소리가 갈수록 커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사부님께 도움을 청하셨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해서 사부님께 부탁드릴 면목이 없어요.” 결국 그녀의 딸이 그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다음번 우리가 다시 법공부를 하러 갔을 때, 그녀의 며느리는 속상해하며 시어머니가 지난번 퇴원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전혀 말끔하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요 며칠 며느리는 줄곧 법의 기점에서 그녀를 도우며 노년 수련생의 정념을 강화해 줬지만 차도가 없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병원에 가기 전, 그녀의 셋째 딸이 며느리를 내쫓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나가 계세요. 제가 엄마와 따로 이야기할게요.” 며느리는 당시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노년 수련생은 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한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 얼굴이 퉁퉁 부어 변형됐고 호흡이 더욱 곤란해져서 산소를 흡입해 완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법공부 팀의 수련생들은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고 힘을 합쳤으며,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함께 발정념을 해 사악이 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을 공동으로 제거했고, 동시에 수련생의 정념을 가지(加持)해 줬습니다. 우리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이기에 오직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만 걸으며, 모든 것을 사부님께 맡기고, 매

순간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묵념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노년 수련생은 매우 평온했고 불편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법공부를 하러 갔을 때, 노년 수련생의 한쪽 눈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안색은 희고 불그스레하며 무척 생기가 있었습니다. 놀랍고 기쁜 와중에 그녀의 며느리가 기뻐하며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이 가신 이후, 시어머니는 사부님께 자신을 구해 달라고 빌면서, 나는 이후에는 나가서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발정념을 시작해 수련생을 박해하는 일체의 사악을 제거했으며, 우리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니 오직 사부님께서만 관할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30분 이후 그녀는 잠이 들었고, 저는 또 30분 동안 발정념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틈만 나면 법공부를 하고 발정념을 했는데, 점차 그녀의 정신과 신체 상태가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멍이 든 것은 침대에서 내려올 때 넘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두 번 넘어졌는데 모두 얼굴이 바닥을 향했으니, 사부님의 보호가 없으셨다면 70여 세 노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노인의 큰딸은 어머니의 변화를 본 이후, 대법의 신기함에 감탄하며 예전에 대법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이 일을 통해 저는 두 가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1) 신사신법(信師信法)해 위난이 닦혔을 때 사부님께 구원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 수련생들의 정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이후, 저는 다른 노년 수련생이 발정념을 할 때 손바닥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녀의 주의식을 강화해 속으로 그녀를 질책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성(神性)이 깨어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마음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에게 정념이 생겼고, 어떻게 수련생을 ‘도와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이 노년 수련생과 저는 가끔 함께 법공부를 하는데, 법공부를 할 때 그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발정념을 할 때는 손바닥이 쓰러졌으며, 몸이 불편하거나 과출소에서 그녀를 교란하면 우리에게 그녀를 위해 발정념을 해달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녀 자신은 여전히 손바닥이 쓰러졌습니다.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여서 저는 속으로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녀가 또 우리에게 목이 아프다며 발정념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노년 수련생의 모습을 이용해 저의 사람 마음을 제거하시고 저의 선한 마음과 정념을 닦아내게 하신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구하고 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부님의 고심 어린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 법을 외우며 진수할 줄 알게 되고 본질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다

글/ 산둥 대법제자

[명혜망] 1998년 말, 나와 아내는 동시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함께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수련의 길을 걸었다.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사태 이후 우리의 수련에 병목 현상이 나타난 듯했고 어떤 본질적인 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2021년부터 우리는 수련생들과 함께 ‘전법륜(轉法輪)’을 외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미 4번째 외우고 있다.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모두의 수련 상태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고 대법의 오묘함을 깊이 깨달았다.

‘전법륜’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외울 때 우리는 한 단락씩 외웠다. 법 암기 초기에는 뚜렷한 느낌이 없었고 단지 사람의 사유로 외웠다. 끊임없이 법을 외운 이후 ‘전법륜’ 속에 적지 않은 부분이 마치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예전에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아무런 인상이 없었다. 계속해서 외우다 보니 종종 일부 내용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다. 이와 동시에 법 암기 내용과 관련된 심성 고비에 자주 부딪혔는데 실제 수련 속에서 다시 제고하게 됐고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착실하게 수련할 수 있었다.

‘전법륜’을 세 번째와 네 번째 외울 때 우리는 한 강의씩 통째로 외웠다. 각 단락의 내용을 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단락과 단락 사이의 연관성도 기억해야 했다. 이렇게 하니 법에 대한 깨달음이

더 이상 하나하나의 점에 국한되지 않고 서서히 전체적인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점에서 깨닫고 제고하든 모두 법의 더 깊은 함의를 깨닫는 것이었다.

법리에 대한 인식이 승화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외운 후 가져온 내적인 변화도 느낄 수 있었다.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관념이 바뀌고 집착과 욕망이 약해지며 본성이 되돌아 나왔다. 이런 변화는 수련에 체현됐다. 법을 외우기 전 수련은 혼돈스럽고 감성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다. 수련 중 문제에 부딪히면 인위적으로 법리를 찾아 끼워 맞췄고 수련이 좀 덜 익은 듯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법을 외운 후 수련은 서서히 맑고 이성적인 상태로 진입했고 법리가 더욱 선명하고 명확해졌으며 정념이 갈수록 증만 해졌다. 법 암기와 실제 수련은 심성과 경지의 제고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전체 수련도 전면적으로 제고됐다.

## 1. 진수할 줄 알게 되다

우리가 법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공산당(중공)은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반(反)박해 속에서 나는 일을 하느라 바빴고 수련을 아주 오랫동안 하면서도 무엇이 진정한 수련인지 몰랐다. 속인 속에서 나는 원래 일을 잘하는 데 능숙해서 자신에게 어떤 단점이나 부족함이 발견되면 곧 행동으로 고쳤는데,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고 효과도 뚜렷했다.

수련의 길에 들어선 후 나는 속인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던 관성을 가지고 수련 중에서 일을 했다. 자신에게 과시심이 발견되면 행동으로 자신이 과시하지 않도록 통제했다. 친구의 아이가 내 아이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해 마음이 불편할 때 그것이 질투심이라는 것을 알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하며 행동으로 질투심을 없앤 것처럼 표현했다. 수련생이 내게 두려움이 무겁다고 말하면 스스로 박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급진적으로 행동해 두려움이 없어졌음을 증명했다. 세 가지 일도 열심히 했다. 법공부 중이나 수련생과 교류 중에 법리를 깨닫게 되면 법리에 따라 행동했는데, 겉보기에는 수련에서 매우 정진하는 것 같았지만 경지는 늘 아주 더디게 제고됐다.

법공부를 통해 나는 자신의 행동이 연공의 ‘연(煉)’을 대체하고 있을 뿐 정작 그 마음은 ‘수(修)’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식했다.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닦기 시작했을 때 수련에서 단번에 깨달음이 열렸고 예전에 얽혀있던 많은 문제가 모두 한 번에 해결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에 수련 중 문제에 부딪히면 나는 우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고 어떻게 해야 수련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인지 생각했다. 지금 나는 우선 자신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고 어떤 집착이 생겼는지 본 다음 그 마음을 겨냥해 수련한다. 그런 다음 자신이 문제를 고려하는 기점이 이기적인 것인지 이타적인 것인지, 진정으로 남을 위해 고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인지 살펴보고 사적인 마음을 닦아 없앤다. 또한 자신이 어떤 기점에 서서 남을 고려하는지, 상대방이 사람 속의 좋은 점을 얻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생명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것인지 살펴며 정법 수련의 기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려 한다.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자신이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 경지의 기준에 따라 하면 되며 심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이다.

마음을 수련하는 전제는 바로 안으로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안으로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으로 찾기다. 내가 이해하는 ‘무조건’이라는 것은 일 자체에 빠지지 않고 쌍방의 갈등에 빠지지 않으며 사람의 옳고 그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보는 것이다. 제대로 찾아야만 목적성 있게 수련하고 제고할 수 있다.

## 2. 근본적인 집착을 닦아 없애고 ‘진정한 나’가 주도하게 하다

안으로 찾는 이 법보(法寶)를 터득하면서 나는 단번에 ‘잘해 보이려는 것’이라는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각종 집착심을 보았다. 나는 이 집착심들을 따라 하나하나 뿌리를 파헤쳐 갔다. 두려움에서 시작했다. ‘수련은 이렇게 신성한데 나는 왜 아직도 두려워하는가? 잘하지 못해 박해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왜 박해를 두려워하는가? 박해받으면 자신이 고생해야 하고 고생하기 싫으며 가족에게 고통을 가져다주어 혈육의 정이 상처를 받고 일에 영향을 주어 명예와 이익에 손실을 입으며 ‘나’의 다방면적인 현실 이익에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이렇게 손실을 두려워하는데 왜 수련하려 하는가? 구우주가 괴멸하려 하고 수련하지 않으면 출로가 없으며 수련해야만 ‘나’를 영구히 존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가 현실과 미래의 이익을 모두 얻기 위해 되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노력해서 세 가지 일을 하고 자신이 박해받지 않는 것과 수련을 견지하는 것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후 나는 또 질투심, 과시심, 쟁투심을 찾기 시작했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적해 보니 최종적으로 모두 생명 속의 그 뿌리에 있는 ‘나’에게로 모아졌다. 그것은 내 생명 속의 각종 관념, 집착, 욕망을 한데 모아 놓은 것으로 그것이 한

모든 일은 내 몸과 마음이 최대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각종 관념을 조율할 수 있었고 인생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각기 다른 요구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여 내가 그것을 위해 악착같이 싸우고 분투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수련하기 전에 줄곧 나를 지배하던 ‘가짜 나’였고 나는 이 ‘가짜 나’를 위해 존재했으며 선천적인 본성인 그 ‘진정한 나’는 오히려 묻혀 있었다. 내가 대법을 접하고 진정으로 대법 수련에 들어선 그 순간 ‘진정한 나’가 깨어났다. 법공부 과정에서 ‘진정한 나’는 법에 동화됐고 반면에 ‘가짜 나’는 수련의 장애물이 됐다.

사부님께서서는 ‘정진요지2-원만을 향해 나아가자’에서 근본 집착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다. 이전에 나는 줄곧 근본 집착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근본 집착을 없애지 않으면 진수가 아니고 사부님의 제자라 할 수 없는지 등 문제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았다. 내가 ‘가짜 나’를 확실히 보았을 때 단번에 명백해졌다. 대법 속에서 단지 개인 수련의 원만을 구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근본 집착이었다. 대법 수련은 원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대법 수련의 원만은 사심이 없고 자아가 없는 상태를 닦아낸 후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경지이며, ‘가짜 나’가 집착하는 ‘원만’은 개인의 집착과 추구다.

나는 이기적인 목적을 품고 대법 속에서 수련한다면 실질적인 제고가 있을 수 없고 진정하게 수련해 나갈 수 없으며 이것은 가짜 수련이 아니겠는가 하고 깨달았다. 어떻게 사부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는가? 근본 집착을 찾을 때 단순히 자신이 입문할 때의 생각만 찾아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따라 계속 파고들어 자신이 수련 중에 또 어떤 사심을 감추고 있는지, 또 어떤 이

기적인 목적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을 이용해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에 도달하려는 모든 생각은 근본 집착에 속하며 모두 진수제자가 반드시 닦아 없애야 할 것이다.

수련 중에서 나는 줄곧 어떻게 해야 자비를 닦아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심이 없고 자아가 없는 상태를 닦아낼 수 있는지 몰랐다.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가짜 나’를 똑똑히 보고 ‘가짜 나’를 약화시키며 ‘진정한 나’의 본성이 되돌아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자비이고 이타심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수련 중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돼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진실한 경지에서 한 행동이며 만약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법 속에서 이 마음을 닦아 더 높은 경지로 승화해야 한다.

### 3. 정법 수련의 경지에 도달해 근본적으로 구세력을 부정하다

수련 속에서 나는 줄곧 자신에게 정법 수련의 길을 걷고 근본적으로 구세력을 부정하라고 요구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종종 그것을 일종의 방법이나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으로 여기고 기계적으로 법리를 가져다 맞췄기에 결코 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진정한 나’가 되돌아 나왔을 때 나는 정법 수련이 사실 진실하고 착실한 수련 경지라는 것을 갑자기 의식했다. 내가 모든 면에서 중생을 위하는 경지에 도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중생을 구하려는 관점에서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법 수련의 길을 걷는 것이다.

대법제자의 정법 수련과 구우주의 개인 수련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일로서, 대법제자는 사부님을 따라 세상에 내려와 사부님을 도와 정법(正法)하는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구세력의 안배에

대해 근본적으로 승인하지 않으시므로 만약 대법제자 자신도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 사부님께서서는 진수제자를 주재하시어 우리가 정법 수련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수련한 후 만약 능동적으로 대법으로 본질적으로 자신을 개변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집착을 품은 채 없애지 않으며 각종 관념을 붙잡고 놓지 않고 ‘가짜 나’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 개인 원만을 위해 수련한다면, 입으로 아무리 구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개인 수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맑은 정신으로 ‘진정한 나’가 주도하게 하고 이기적인 기점을 없애며 세 가지 일을 잘하는 과정에서 심성을 수련하고 고생을 겪으며 업력을 소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하게 정법 수련의 길을 걷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구세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 4. 법을 외우는 중에 함께 정진하다

우리와 함께 법을 외운 사람 중에는 우리 법공부 팀의 수련생도 있고 이 과정에서 인연이 있어 함께 걷게 된 수련생도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

우리 법공부 팀의 한 수련생은 수년 전 거리에서 진상을 알릴 때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고돼 납치됐다. 나온 후 나와 아내는 그녀와 한번 교류를 했는데 이 수련생이 아주 선량하고 법에 대해서도 아주 확고하지만, 단지 법공부 상태가 좋지 않아 법공부할 때 쉽게 졸음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말로 ‘머리가 멍하고 법이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들며 각종 방법을 써보아도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당시 그녀의

집에 법공부 팀을 만들고 다른 몇몇 수련생과 함께 법공부하기로 결정했다.

단체 법공부 후 이 수련생의 상태가 어느 정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우리는 함께 법을 외우기로 결정했다. 수련생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홍음(洪吟)’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 이어서 ‘정진요지’를 외우기로 결정했다. 2021년부터 우리는 또 함께 ‘전법륜’을 외우기 시작했다.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수련생은 여러 번 ‘머리 위에 마치 틈이 열린 것 같고 끊임없이 빛이 들어오며 무언가 깨달음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수련생은 매우 정진했는데 나이가 우리보다 모두 많고 학력도 높지 않았지만 법을 외우는 데서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었고 자신에 대한 요구도 아주 엄격해, 자신에게 한 글자도 틀림없이 외우도록 요구했으며 종종 우리보다 더 잘 외우곤 했다.

현재 이 수련생의 법공부 상태는 아주 좋아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으며 법리에 대한 인식도 매우 선명하고 세 가지 일도 아주 잘한다. 법 암기의 장점을 직접 체험했기에 이 수련생은 또 별도로 다른 법공부 팀을 만들어 다른 수련생과 함께 법을 외우고 있다.

또 다른 한 수련생은 병업 교란으로 잠을 자지 못했고 심각한 우울증 가상을 보여 심지어 기본적인 법공부와 연공조차 보장할 수 없었다. 나와 아내는 그와 함께 법공부하고 교류하며 한동안 견지했지만 뚜렷한 개선은 없었다. 수련생은 법리로는 모두 명백히 알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명혜망의 한 교류 문장에 이런 말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련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만약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 암기다. 오직 법만이 진정으로 당신이 시련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수련생은 듣고 약간 주저하며 “나는 지금 머리가 온종일 어지러워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수련생을 격려했다. “법 암기는 양에 있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우면 되며 외우는 것이 외우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수련생은 동의했다.

우리는 2주일 동안 ‘전법륜’ 제1강의 첫 절 ‘진정하게 고층차(高層次)로 사람을 이끌다’를 다 외우기로 약속했다. 2주일 후 우리는 약속대로 만났고 모두 책을 보지 않은 채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한 단락씩 외웠다. 첫 절을 다 외운 후 수련생이 계속 외울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어서 외웠고 줄곧 ‘기공(氣功)은 곧 수련(修煉)이다’까지 외웠다. 제1강을 꼬박 절반을 외우자 수련생의 정신 상태도 뚜렷하게 바뀌었고 모두 아주 기뻐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2주마다 반 강씩 진도를 나가며 외우기로 약속했고 현재 ‘전법륜’을 곧 다 외워 간다.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수련생은 병업 가상에서 벗어났고 현재 완전히 정상적으로 수련, 생활, 업무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수련생은 사악한 인원에게 감시받는 상태에 처해 고정적인 단체 법공부 환경이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법공부를 보장하지 못하면 처지가 더욱 위험해진다. 이런 상황을 겨냥해 우리는 ‘전법륜’을 외우는 방식을 채택해 법공부를 보장하기로 결

정하고 매달 한 강이나 반 강을 외웠다. 이 수련생은 예전에 ‘전 법륜’을 외운 적이 있었지만 매번 제1강을 다 외우지 못하고 멈추곤 했다. 이번에 법을 외울 때 수련생은 아주 진지하게 아주 노력해서 줄곧 견지해 나갔으며 현재 이미 제6강까지 외웠다. 수련생 가족의 말에 따르면 수련생은 매일 일찍 일어나 법을 외운다고 했다. 수련생이 아주 좋은 법공부 상태를 갖춘 것을 보고 모두 마음속으로 아주 기뻐했다.

법 암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수련생은 하나의 공통된 느낌을 받았다. 법 암기 과정이 바로 법에 동화하는 과정이고 수련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법을 외울 수 없고 어느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수련하지 못하면 외우기가 아주 힘들며, 확고한 수련 의지와 결심이 없으면 계속 견지해 나가기 힘들고 법공부 팀의 단체 환경을 떠나면 혼자서도 견지해 나가기 힘들다.

끝까지 법 암기를 견지한 수련생 모두는 법 암기가 자신의 수련에 가져다준 실질적인 제고를 체험했고 주변에도 갈수록 많은 수련생이 법 암기 대열에 가입하고 있다. 만약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하지 못한다면 법 암기는 확실히 법공부하고 법을 얻는 좋은 방법이다.

개인의 깨달음이므로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

## ‘사상업력’에 대한 인식

글/ 혜매(慧梅, 중국)

[명혜망] 나는 1994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다. 30여 년의 수련을 돌아보면 진정으로 수련할 줄 알고 진정으로 착실히 수련한 것은 불과 최근 몇 년이다. 오랫동안 수련할 줄 몰랐기에 법공부할 때 졸음이 오고 연공할 때 졸리며 멍해지고 발정넘할 때 손이 넘어지는 상태에 줄곧 처해 있었다. 명혜망에서 수련자가 어떻게 졸음과 손이 넘어지는 것을 돌파했는지에 대한 교류를 보고 그대로 따라 했지만 효과가 좋지 않았다.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하고 안으로 찾을 줄 모르는 데다 자신이 곱은 길을 걸었기에(대법과 사부님께 미안한 일을 했음) 스스로 헤어나지 못했고 강력한 압력에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다.

다행히도 사부님께서 자비로우시어 이 못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정진하는 수련자가 나와 교류하게 해주셨다. 나는 그녀 집에 가서 함께 먹고 자며 지냈다. 그녀가 법에서 나와 교류해 주어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고 자신이 왜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지도 알게 됐으며, 어떻게 안으로 찾고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 그리고 법공부할 때 즐기고, 연공할 때 즐리며, 멍해지고 손이 넘어지는 상태도 돌파했다.

주위 수련자 중에도 나와 같이 오랫동안 즐기고 멍해지며 손이 넘어지는 상태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수련자가 내게 그것을 글로 써보라고 건의했다. 내가 요 며칠 수련자와 교류하며 어떻게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안으로 찾아 졸음, 멍해짐, 손 넘어짐

을 돌파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써서 수련자들과 교류하고자 한다. 나와 같은 수련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법에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수련자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오빠 언니의 보살핌을 받았다. 자라서도 신체적 원인으로 일할 수 없어 오랫동안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생활했다. 이로 인해 나는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의존적이며 자기 자신만 고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성격이 형성됐다. 수련을 하고도 자신은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련자가 언니가 나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나는 생각이 없다고 했고 수련자가 왜 그렇게 묻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수련할 줄 모르는 흔한 예다.

장기적인 의존성과 자아는 나를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게 만들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수련자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냉담함입니다. 사(私)는 구우주의 특성이고 신우주는 타인을 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것을 배워야 하고 자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자아의 작은 울타리 속에 살지 말고 걸어 나오세요.”

나는 처음 수련자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수련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 나를 위해 말해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묵묵히 생각했다. ‘나는 구우주의 이기적인 생명이 되지 않을 것이고 신우주의 타인을 위하는 생명이 될 것이다. 나는 서약을 실현하고 사부님의 정법을 도우며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수련해 낼 것이다.’

나는 수련자에게 자신이 기른 습관은 때로 깨닫지 못하니 반드시 내게 일깨워 달라고 말했다. 수련자가 말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며 생각해야 합니다(법에 대조해 안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찾기).”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안으로 찾는 습관을 기르지 않았기에 수련자의 말이 맞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나는 주변의 많은 수련자도 나와 같음을 보았는데 들려오는 말은 ‘찾을 줄 모른다’거나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였다.

내가 안으로 찾으려는 마음이 생기자 사부님께서서는 어떻게 안으로 찾는지를 내게 일깨워주셨다. 《전법륜(轉法輪)》을 법공부할 때 나는 단번에 일반 사람은 안으로 찾지 않고 모두 밖을 본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우리 연공인이 수련하는 하나의 법보(法寶, 법력이 있는 보물)는 바로 안으로 찾는 것이다. ‘거울’은 비친 것을 뒤집어서 당신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본 것을 이용해 자신에게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집착심이든 모두 제거해야 하므로 거울은 전체 공간장에서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으며 모두 자신의 집착심을 보게 하고 그것을 제거하게 한다. 사부님께서서는 이미 안으로 찾는 기제를 우리에게 주셨다.

법공부할 때 졸음, 연공할 때 졸음과 멍해짐, 발정넘할 때 손이 넘어짐, 이것들은 모두 내가 오랫동안 돌파하고 싶었지만 또 돌파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 명혜망에서 수련자들의 이 방면 교류를 보고 자신이 따라 했지만 결과는 짐작할 수 있듯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것은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밖으로 추구한 것이며 법이 아닌 사람을 배운 것이기 때문이다.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셨다. “무릇 연공(煉功) 중에 이런 교란, 저런 교란이 나타나면, 당신이 아직도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당신 자신이 원인을 찾아야 한다.”

나는 내게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무엇이 있는지 생각했지만 법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시간이 길어지자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상태가 생겼다. 수련자가 말했다. “당신은 법공부를 적게 했고 수련할 줄 모르며 주의식이 맑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주의식이 맑지 못한 것일까?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단독으로 한 소절을 꺼내 ‘주이스(主意識)가 강해야 한다’를 말씀하셨다. 나도 수련자들이 교류에서 ‘주이스가 강해야 한다’를 반복적으로 외워 주의식을 강화하고 법공부와 연공할 때 졸리고 멍해지며 발정넘할 때 손이 넘어지는 문제를 돌파했다는 것을 보았다. 나도 이 단락의 법을 외웠다. 하지만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는 마음을 품고 외웠기에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수련자는 내게 생각하고 사고하며 왜 그런지 자신에게 여러 번 물어보라고 알려주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지 이 일이 어디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지 어떻게 법으로 해결할지 말이다. 그날 밤 나는 그곳에 앉아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졸리고 멍해질까? 주의

식이 강하지 않아서다. 그럼 왜 주의식이 강하지 않을까?’ 나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주이스가 강해야 한다’ 이 단락의 법을 외우기 시작했다. 외우다 보니 나는 ‘주이스가 강해야 한다’ 이 소절이 주로 사상업력(思想業力)을 말씀하신 것임을 단번에 의식했다.

이전에 이 단락의 법을 법공부할 때 나는 줄곧 스승을 욕하고 대법을 욕하며 어떤 사악한 생각과 욕설을 하는 것만이 사상업력이라 여겼고 내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부님께서 《정진요지(精進要旨)》의 〈명지(明智)〉에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사상 중에서 더러운 생각이 격렬하게 반영되어 나와 스승을 욕하고, 대법(大法)을 욕하며, 사람을 욕하는 등등의, 내버리지도 억누르지도 못하는 이런 것이 바로 사상업력(思想業力)이다. 그러나 또 일부 약한 것도 있으나, 통상 정상적인 사상업두와는 같지 않으므로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바로 이 사상업력을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중시하지 않았기에 줄곧 나를 교란해 내가 오랫동안 시련 속에서 돌파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인식한 후 나는 직접 발정념을 해 그것을 제거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연공에서 나는 처음으로 입정(入靜)한 그 아름다운 상태를 느꼈다. 연공을 마치자 수련자도 말했다. “당신은 오늘 내내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있었고 멍해지지 않았습시다.” 이어진 발정념 효과도 매우 좋아 30분 동안 예전의 망상도 없었고 졸음이 오는 상태는 더더욱 없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상업력이 형성됐을까? 사부님께서 《전법륜(권 2)》의 〈불성(佛性)〉에서 하신 설법을 다시 복습하면서 나는 자신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너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관심 가지는 것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데서 형성된 관념이며, 길러

진 습관이 내가 오랫동안 사상업력에 통제당하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게 했고 나아가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상태를 낳게 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했는데 이 또한 구세력의 세밀한 안배였다.

사부님의 설법은 내가 자책하고 소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러나 법공부할 때 즐기고 연공할 때 즐리며 멍해지는 상태가 여전히 때때로 나타났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미 사상업력을 명확히 인식했고 그것을 배척하고 제거했는데 왜 여전히 즐기고 멍해지는 상태가 나타나는 걸까?’

내가 다시 안으로 찾으니 ‘안일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끊임없이 찾으니 나는 사상업력을 명확히 인식하자 ‘안일심’이 다시 나타났고 ‘안일심’을 명확히 인식해도 이 상태가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나는 반드시 깊이 파고들어 뿌리에서부터 찾아야 했다.

나는 단번에 이 모든 것이 구세력이 강요한 것임을 인식했다. 그것은 사상업력을 이용하고 ‘안일심’ 등 각종 사람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情)을 이용해 대법제자를 교란한다. 대법제자가 그것을 똑똑히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라고 승인했을 때 그것은 약점을 잡아 대법제자를 교란하고 박해한다. 그것은 그렇게 나쁘며 대법제자가 수련 성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르러 나는 이미 알게 됐다. 더 이상 집착심을 하나하나 찾을 필요 없이 직접 구세력의 모든 안배와 박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오직 법에 있지 않은 일념과 상태라면 배척하고 청리(淸理)해 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자분께 감사드립니다!

## 사람의 이치로 더 이상 모든 것을 따지지 말자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한 달 전부터 나는 사람의 정 속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고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졌다. 표면적으로 볼 때 내 외적 상황에도 거대한 변화가 생겨 자주 아주 피곤하다고 느꼈고 얼굴에는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몸 곳곳에 며칠 사이 무더기로 두드러기가 돋아났다. 내 상태가 올바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온몸에 가득한 억울함과 심신 건강이 입은 거대한 손상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었다. 안으로 찾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음속으로는 오직 사람의 이치로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지만 생각하며 이후 집안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까 봐 두려웠다.

어젯밤 꿈 한바탕 꿈이 나를 철저히 일깨웠다. 나는 이 꿈을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수련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인생은 꿈과 같으니 더 이상 정 속에 빠져들지 말고 더 이상 사람의 이치로 모든 것을 따지지 말며 사람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인연이 지나가고 나서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사연은 이러하다. 어제 나는 특히 피곤하다고 느꼈다. 마음속에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분노가 있어 며칠 내내 법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법공부를 해 법을 얻지 못했고, 심지어 밤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누워서 휴대폰을 보았다. 매일 이랬고 눈을 조금도 뜰 수 없을 때가 돼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곤히 잠들었다.

어제 꿈속에서 나는 거대하고 엄격하며 깊고 묵직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단번에 내가 세 번의 기회를 다 썼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커다란 스크린이 내 왼쪽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4, 5, 6’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사실 이전에 나는 ‘1, 2, 3’과 유사한 꿈을 꾸 적이 없지만 꿈속에서는 사부님께서 이미 내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커다란 스크린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거기에 일찍이 ‘1, 2, 3’이 나타났었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어젯밤 꿈속에서 커다란 스크린이 펼쳐지는 그 순간을 보았을 때 나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거기에 다시 ‘4, 5, 6’ 세 번의 기회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때 선명하게 ‘0’이 나타났는데 역시 내 왼쪽 앞이었다. 이는 나에게 즉시 사부님께서 한 설법에서 언급하신, 법이 인간 세상을 바로잡는 때가 도래했을 때 잘하지 못한 제자가 무엇에 직면하게 될지가 생각나게 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스크린의 ‘0’과 함께 거대하고 엄격하며 깊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직-한-번” 아주 아주 느리게 말씀하셨지만 글자마다 힘이 있었고 글자마다 깊고 엄격하셨다. 마치 못난 자식을 마주한 부모의 어찌할 수 없지만 또 위엄 있는 존재와 같았다.

그 후 나는 잠에서 깼다. 나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내게 주신 일깨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사실 나는 이미 사부님께서 주셨던 세 번의 기회를 다 써버렸지만(사실 어찌 세 번 뿐이겠는가)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서는 내가 모든 기회를 다 소진한 이후 나에게 다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나는 얼마 전 꿔던 또 다른 꿈 하나가 연상됐다. 꿈속에서 나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졸업까지 단 3개월만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졸업 과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꿈속의 나는 나 자신에게 ‘3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졸업하지?’라고 물었다. 그렇다. 자신이 완성해야 할 일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졸업하겠는가?

나는 또 몇 개월 전 한 살도 안 된 딸이 내 휴대폰을 갖고 놀던 때가 연상됐다. 내가 딸의 손에서 빼앗을 때 딸이 영문도 모른 채 아무렇게나 눌러서 나온 몇 글자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엄마 시험.’

사부님께서서는 줄곧 기다리고 계시고 줄곧 몹시 고생하시며 못한 제자를 위해 수련의 시간을 쟁취하시고 감당하고 계시며 또한 매번 자비로운 일깨움과 하늘로 돌아갈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인생은 꿈과 같다. 이런 인생을 어찌면 우리는 진작 수백수천 번 겪어왔을 것이고 마지막 한 번임에도 여전히 온 마음을 쏟아 그 속에 깊이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부님의 넓고 크신 은혜로 줄곧 길 잃은 제자를 기다리시고 이끌어주신다. 오직 사람의 이치를 포기하고 대법 법리를 사용해야만 비로소 짙은 안개를 뚫고 구름을 헤쳐 밝은 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고 기회가 많지 않으니 우리 모두 서둘러 다잡아야 한다!

## 한유의 변화: 관념을 바꾸려면 직접 겪어보아야

글/ 샤오청언(肖承恩)

[명혜망] 지금까지 사서에서 한유(韓愈)는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대표 문인, 유가 정신의 계승자, 시인 등으로 기록돼 있지만, 수련과 관련된 서적에는 그의 또 다른 이면이 기록돼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한유의 일생은 거대한 기복을 겪었으며, 심지어 남방으로 좌천돼 진령(秦嶺)을 지날 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어떻게 곤경에서 벗어났고, 또 어떻게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어 불도(佛道)를 비방하던 데서 신(神)을 믿고 공경하게 됐으며, 이로써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길로 나아가게 됐을까?

한유는 젊은 시절 늘 유가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진학해(進學解)’에 자신의 뜻은 이단과 사설을 배격하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며, 유학의 결함을 메우는 것이라고 썼다. 한유가 하남령(河南令)을 맡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집을 버리고 왕옥산(王屋山)으로 도를 닦으러 가자, 하남소윤(河南少尹) 이소(李素)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모시라고 권했다. 한유는 이 일을 알고 이 젊은이를 가르치러 가겠다고,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아주 심하게 말했다. 이 젊은이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한유는 ‘수씨자(誰氏子)’를 지어 이 일을 기록했다. “어리석지도 미치지도 않았는데 뉘 집 자식인가? 왕옥산에 들어가 도사라 칭하려 하네.” “신선은 비록 전설이 있지만, 아는 자는 모두 그것이 허망함을 안다네.” “어떤 친구와 친척이 그를 가련하게 여길까, 내가 이 시를

써서 보내주노라.”

서기 819년, 당나라 장안(長安)성 외곽 봉상현(鳳翔縣) 법문사(法門寺)에 부처의 손가락뼈 사리가 모셔져 있었는데, 마침 30년 만에 한 번 세상에 나오는 때라 황제가 칙령을 내려 국민의 예로 불골 사리를 맞이하도록 했다. 한유는 온 나라가 위아래로 불골에 예를 올리는 것은 국력과 백성의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에 붓을 휘둘러 ‘간영불골표(諫迎佛骨表)’를 써서 불교는 외래 이교도이며 선왕의 예법에 어울리지 않으니 황제에게 이 뼈를 물과 불에 던져 부처를 모시는 일을 영원히 근절하고, 지금 천하 사람들과 후대의 의혹을 끊어달라고 청했다. ‘간영불골표’는 장광설에 어조가 몹시 격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황제는 이를 읽고 분노를 금치 못하며 한유를 극형에 처하려 했으나, 몇몇 대신의 만류로 그를 남방 조주(潮州)로 좌천시켰다.

한유의 인생행로는 이때부터 급격히 바뀌었다. 조주는 아득히 먼 남방 오랑캐 땅에 자리 잡고 있어, 독기가 숲에 가득하고 맹수가 출몰해 가족들 모두 걱정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유는 어려서부터 외롭고 고생스럽게 자랐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만형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만형마저 그가 1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한유는 형수, 조카 십이랑(十二郎)과 어려서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한유가 마침내 공명을 이루고 가족에게 보답하려 할 때, 하늘은 십이랑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의 아들 한상(韓湘)만 남겨두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잃은 한유는 한상을 친자식처럼 여겼고, 그를 예의범절을 아는 경세치국의 인재로 키우고자 했다.

‘청쇄고의(靑瑣高議)’의 기록에 따르면, 한상은 한유의 종손으

로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얽매이지 않아 문공(文公)이 학문을 권면했다.” 한유의 눈에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외골수이고 규범을 좋아하지 않았다. 한유는 공무가 바빠 집안일을 돌볼 겨를이 없었는데, 누군가 한상에게 학업을 가르쳤고 그도 매일 책을 읽으며 공부했다. 한번은 한유가 한상에게 부지런히 공부하여 공명을 얻으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한상은 “제가 배우는 것은 대감께서 아시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한유가 시를 한 수 지어보라고 명하며 “시로써 뜻을 보겠다”라고 하자, 한상이 불쑥 읊었다. “청산의 구름과 물 가득한 이 동굴, 바로 이곳이 나의 집이라네. 저물녘엔 신령한 감로수를 마시고, 새벽엔 붉은 노을을 씹어 삼키네. 거문고로는 맑고 영롱한 가락을 타고, 화로에선 선약(仙藥) 주사(硃砂)를 달구네. 신선의 솔엔 금빛 호랑이를 간직하고, 단전(丹田)에는 흰 까마귀를 기르네. 표주박 하나에 온 세상을 품고, 석 자 검으로 요사한 것들을 베어내네. 순식간에 술을 빚을 줄 알고, 눈 깜짝할 새 꽃을 피울 수 있다네. 누군가 나를 따를 수 있다면, 함께 신선의 꽃을 보리라.”

한유가 듣고 “너에게 그렇게 큰 재주가 있다면 조화의 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상은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한상이 작은 흙무더기를 모으자, 그 흙무더기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새싹이 돋아났고, 이내 한 포기 of 푸른 식물로 자라더니 모란꽃만 한 질푸른 꽃을 피웠다. 꽃 사이로 두 줄의 글자가 나타났다. “구름이 진령에 비껴있으니 집은 어디에 있는가? 눈이 남관(藍關)을 가로막아 말이 나아가지 못하네.” 한유가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자 한상은 웃으며 “장차 아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일은 ‘청쇄고의’와 ‘유

양잡조(酉陽雜俎)’에 모두 기록돼 있다.

한유는 조주로 좌천되면서 먼저 진령을 넘은 뒤 다시 남쪽으로 가야 했다. 망망한 진령은 한겨울이라 몹시 험난했다. 남관[남전현(藍田縣) 경내]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폭설이 내려 길을 가기 매우 어려웠고 거의 진퇴양난의 지경이었으니, 이는 한유의 일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생사가 걸린 상황이었다.

이때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왔다. 한유가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한상이라 황급히 물었다. “네가 어떻게 왔느냐?” 한상이 말했다. “꽃에 적힌 글귀를 아직 기억하십니까?” 한유가 묻기를 “내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느냐?”라고 하자 한상은 “남관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한유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며 깊이 탄식하다가 “내가 그 두 구절의 시를 인용하여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겠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진령의 망망한 천지 사이에 천고에 전해지는 이 ‘좌천지남관시질손상(左遷至藍關示姪孫湘)’이 탄생하게 됐다. “아침에 구중궁궐에 상소 한 통 올렸다가, 저녁에 팔천 리 밖 조양(潮陽)으로 좌천됐네. 본래 성군을 위해 폐정을 제거하려 함이 었거늘, 어찌 늙고 쇠약해진 남은 여생을 아끼리오? 구름이 진령에 비껴있으니 집은 어디에 있는가? 눈이 남관을 가로막아 말이 나아가지 못하네. 네가 멀리서 온 데는 뜻이 있을 터, 독기 서린 강가에서 내 뼈를 잘 거두어다오.” 이 시는 ‘한유문집(韓愈文集)’에 수록돼 있으며, 한유가 남관에서 우연히 한상을 만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 나중에 한유는 또 ‘서주증족질(徐州贈族姪)’이라는 시를 지었다. “스스로 기이한 술법이 있다고 말하며, 오묘함을 탐구해 하늘의 조화를 아네.” 이 조카는 자신이 도술이 있어 우주 천지의 오묘함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령을 넘어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고 한유는 마침내 조주에 도착했다. 조주는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환경이 험악했다. 하지만 한유에게는 오히려 인생행로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그는 부임 초기에 민심을 살폈는데, 백성들은 모두 “악계(惡溪)에 악어가 있어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을 거의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빈곤합니다!”라고 말했다.

며칠 후 한유는 직접 악계를 시찰하러 갔고, 그의 부하들이 양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를 계곡에 던져 넣었다. 아울러 ‘제악어문(祭鱷魚文)’이라는 기도문을 지었는데, 언사가 중정(中正)하고 위엄이 넘쳤다. 자사(刺史)로서 “이 땅을 지키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어찌 악어가 “자사와 맞서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다투려 하는가!” 만약 악어가 “옮겨가 피하지 않고 어리석고 완고하게 백성과 만물에 해를 끼친다면”, 곧 “모두 죽일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다 죽여야만 그칠 것이다”라고 했다.

그날 밤, 계곡에서 폭풍과 뇌우가 일더니 며칠 뒤 물이 다 말라버렸고 악어는 서쪽으로 60리나 이주했다. 이로부터 조주에는 더 이상 악어의 우환이 없었고 그 후 계곡물은 회복됐다. 이 ‘제악어문’은 ‘고문관지(古文觀止)’에 수록돼 있다. 공부낭중(工部郎中) 황보식(皇甫湜)이 한유를 위해 쓴 ‘신도비서(神道碑敍)’에서 이르기를 “형부시랑(刑部侍郎) 한유가 조주 태수가 된 것은 구름 속의 신선이요, 동천복지(洞天福地)의 은사(隱士)라 할 수 있다. 관아의 관리와 변방의 백성들이 그의 행위에 감화되어, 악어조차도 다시는 백성들에게 화를 끼치지 않게 됐다”라고 했다.

조주에서부터 한유는 생명의 또 다른 창문을 연 듯했다. 그는 한때 불도(佛道)를 이단과 사설로 여기며 전력을 다해 맹렬히 비

난했으나, 이제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사색하기 시작했다.

조주에서 그는 잇달아 지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고, ‘조주제신문오수(潮州祭神文五首)’, ‘제상군부인문(祭湘君夫人文)’, ‘제죽림신문(祭竹林神文)’, ‘남해신묘비(南海神廟碑)’ 등 신을 제사 지내는 글을 썼다. 후대의 수많은 문인 묵객들은 한유가 쓴 ‘제악어문’과 조주에서 신령에게 제사 지낸 여러 글을 보고 사실 어리둥절해했다. 당나라 문단의 대표가 왜 이토록 많은 제신(祭神) 문장을 썼단 말인가? 하지만 한유는 조주에 있을 때나 나중에 장안 등으로 돌아와 임직했을 때나 여전히 유가적 면모와 대문호의 신분을 유지했고, 심지어 어떤 시문은 숨기는 바도 있었는데 어떤 일은 차마 툭 터놓고 말하기 불편했던 것 같다.

사실 한상과 한유는 줄곧 연락을 끊지 않았고, 한상은 늘 한유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나타났다.

‘팔선(八仙)’은 중국 민간에 널리 알려진, 도를 얻어 신선이 된 여덟 명의 신선이다. 예로부터 믿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미신이라고 배척했다. 하지만 ‘이십사사(二十四史)’의 ‘구당서(舊唐書)·장과전(張果傳)’에는 당 현종(唐玄宗) 개원(開元) 22년에 항주(恒州)의 장과(張果) 선생을 불러들여 은청광록대부(銀青光祿大夫)를 제수하고 통현선생(通玄先生)이라는 호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장과의 갖가지 신기한 표현은 당 현종으로 하여금 신도(神道)의 진실한 존재를 깊이 믿어 의심치 않게 했다. 또 ‘송사(宋史)·진단전(陳搏傳)’에는 관서(關西)에 숨어 사는 여동빈(呂洞賓)이 검술을 갖추었고, 100여 세가 넘어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으며 걷는 것이 빠르고 가벼워 순식간에 수백 리를 걸어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신선으로

여겼다고 한다. 여동빈이 몇 차례 진단(陳搏)의 재실(齋室)에 오자 사람들은 모두 경이로워했다. 그런데 한유의 시 작품에는 한상을 종손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역주: 한상은 팔선 중 한 명인 한상자(韓湘子)다.] 팔선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공식적인 정사(正史)가 제시하는 증거 앞에서 종종 보고도 못 본 체하거나 회피하며 언급하지 않는다.

한유로서는 유교 자체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확연히 깨닫게 됐다. 그는 일찍이 ‘간영불골표’에서 공자가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라고 한 말을 이유로 불교, 도교 및 모든 신령을 배척했다. 하지만 한나라 유교의 대가 동중서(董仲舒)는 오히려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제기했고, 유가의 원전인 ‘상서(尚書)’에는 “오직 하늘만이 총명하시다”, “오직 천지는 만물의 부모요, 오직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쓰여 있다. 하늘은 또 무엇인가? 하늘이 바로 신이 아닌가? 하늘이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주에서 한유에게는 또 하나의 인연이 있었다. 대전보통선사(大顛寶通禪師, 732~824)는 광동성 조양 사람으로 법명은 보통(寶通)이고 스스로 대전화상(大顛和尚)이라 칭하며 영산사(靈山寺)에서 수행했다. ‘여맹상서서(與孟尚書書)’에서 한유는 “먼 곳이라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대전이라는 노승이 있었고 매우 총명하고 도리를 안다”, “실로 형해(形骸)를 벗어나 이치로써 스스로 이기고 사물에 침해되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라고 썼다. 한때 불교를 맹렬히 비난했던 유학자가 황량한 들판에서 승려와 인연이 닿아 가슴속의 완고한 고질병을 녹여버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송팔대가인 구양수(歐陽修)는 ‘한문공별전후서(韓

文公別傳後序)’에서 한유와 대전선사의 왕래에 대해 조금도 의심치 않으며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 “불교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더욱 성행하는 것은, 어찌 그 도가 참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 하늘이 마침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가히 예측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당나라 이후 송, 원, 명, 청에 이르러 불교는 중국 민간에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미 불교의 인과윤회(因果輪迴)와 선악유보(善惡有報) 관념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

한 사람의 관념이 바뀌는 것은 가장 어려우며, 특히 일부 원로 학자나 학문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유는 인생의 우여곡절과 난관을 겪은 후, 이른바 ‘직접 겪어봐야 안다(親歷方知)’는 깨달음의 순간을 목격했다. 진령에서 한상과의 만남, 조주에서 대전선사와의 간담은 그가 우주와 천도를 인식하는 새로운 기회와 인연을 열어주었고, 역사상 과감히 자신에게 도전해 관념을 바꾼 미담을 썼다.



▲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앞두고 캐나다 동부의 일부 파룬공수련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세계 파룬따파의 날 27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19명의 캐나다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하를 했고 한 국회의원은 축하 편지를 보내 지지했다. 의원들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이념과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 시장 마크 서트클리프(Mark Sutcliffe)가 시의회를 대표해 올해 5월을 ‘오타와 파룬따파의 달’로 선포했다. 이는 이 도시가 파룬따파 단체를 표창하는 15번째 해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공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39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150만 9203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공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